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미래 신산업 육성

전남도, 2024년까지 화학·철강 재도약 발판 마련 내년 18개사업 국비 609억 확보 일자리 창출 나서

전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울산산단을 연계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를 통해 화학·철강 산업 재도약 기반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업추진 첫 해인 내년에는 18개 사업 국비 609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본격적인 산단 대개조에 착수하게 됐다. 산단 대개조는 제조업 중심 산단과 인접 인프라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5월 정부 첫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만권 산단은 석유화학·철강산업 집적지로 전남 산단 생산액의 89%, 입주기업의 24%, 고용인원의 57.7%를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전남도는 광양만권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육성키로 하고 거점산단과 연계, 산단별 기능 배분과 특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별도 지정함에 따라 정부 뉴딜정책에 맞춰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신산업 창출산단'으로 개조한다.

또 광양국가산단은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해 스타트업 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차전지, 금속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울산일반산단은 여수·광양산단의 석유화학, 철강제품을 정밀화학, 금속 소재부품 등 고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를 연계

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광양만권 산단은 공업용수, 폐수처리, 산업용지, 배관망 등 공공인프라 부족과 노후화로 기업의 대규모 신규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스마트 기반 부족과 반복되는 환경·안전사고 문제발생, 주력산업인 화학·철강산업의 장기 저성장과 신성장산업과의 가치사슬 연계 등 산업 고도화 필요성도 절감 제기돼 왔다.

전남도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이 같은 환경·안전문제 해결과 노후 인프라 개선, 제조환경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혁신적 변화로 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52개 신규사업과 16개 연계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협의의 중이며, 오는 12월 정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사업을 확정짓게 된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내년도에 우선 추진할 18개 사업에 대한 1차년도 국비 609

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사업은 광양만권 산단의 반복적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과 유해물질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내 환경·안전 통합관리센터와 함께 개별공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여수산단 공장 신·증설에 따른 원료와 제품 이송 배관망을 확충하고, 노후 지하배관망 누출사고 방지와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갖출게 된다. 근로자 복지와 편의 제공을 위해 복합문화센터와 행복주택을 건립하고,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산단거리 조성 등 산단 재생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광양만권 산단은 전남경제의 버팀목이나, 대표적인 노후단지로 제조업 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등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공모사업 선정 302억 확보

전남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서 사업비 302억원을 확보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을 위한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분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돼 단열저하와 결로·곰팡이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 환경이 열악해 추진된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창호 및 내·외벽단열재 교체, 비틀 고효율 냉난방장치와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감율을 최소 30%까지 달성하는 등 쾌적한 재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 개선은 물론 재실 환경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시설과 보건시설,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전남도는 1차 사업으로 광양시공립요양병원(24억원)과 고흥군보건소(12억원),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어린이집(7억원) 등 총 66개소(의료시설 1개소, 보건시설 46개소, 어린이집 19개소)에 사업비 24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사업들에 대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 내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잔여 사업비 55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도는 독일 패시브하우스연구소(PHI)의 인증을 받은 디자이너를 그린리모델링 총괄기자가로 위촉해 공사 계획자문과 공사 전반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맡겼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중국 시장 겨냥 '맞춤형 지원' 강화

중화권 수출 지원 참가기업 모집

전남도는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과 상품화, 수출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화권 수출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 표준·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관세 장벽에 따른 통관도 까다로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마련했다.

모집은 인증지원과 포장지 디자인 개발 등 2개 분야로 나눠 각각 10개 기업씩 총 20개 기업을 모집한다.

인증지원 분야 참여기업은 개소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며, 디자인 개발 분야 참여기업은 제품용기 개발에 최대 1600만원, 포장지 디자인 개발의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한 국내 수출기업은 18일까지

지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 이메일(son0936@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또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워싱턴 등 온라인물 입점과 왕홍생방송, 화상상담 등 온라인 마케팅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제품 개발과 표준인증 획득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초기 제품 개발부터 최종 소비시장을 염두에 두고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G 기반 도로 관리 서비스 구축 광주시·SKT,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모한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5G 공공부문 선도 적용' 사업에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응모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의 필수 기술인 MEC는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중앙까지 전송하지 않고 서비스 현장에서 처리하는 기술이다.

광주시는 관용 차량에 특수 단말기를 설치, 도로 파손·노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계획이다. 맨눈으로 보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청 비대면 간부회의 15일 오전 광주 북구청에서 홍보전산과 행정정보팀 직원들이 화상 간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다. 북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대면 회의로 진행됐던 간부회의를 9월부터 비대면 회의로 시스템을 전환했다. <광주 북구청 제공>

나주 SRF발전소 민관 거버넌스 기본 합의서 기한 연장

손실보전방안 합의 어려워 연장 기간 별도 회의서 결정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오는 25일 기본 합의서 효력 상실을 앞두고 손실보전 방안을 담은 부속 합의서 합의 기한을 연장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손실보전 방안 관련 부속

합의서 작성을 위해 기한을 연장했다. 다만 거버넌스는 기한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 오는 25일 이전에 별도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5개 거버넌스 참여기관은 지난해 9월 26일 SRF 발전소 가동 중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당시 시민 참여형 환경 경향 조

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보전 방안, 기타 사항으로 된 4가지 사항에 대해 기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개별 부속 합의서 작성 시한을 1년으로 정했다. 원칙적으로 1년 안에 부속 합의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 합의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되, 참여기관 합의를 거쳐 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합의 시한을 10일 남겨두고 손실보전방안 관련 부속합의서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합의 시한을 연장한 것이다.

손실보전 방안 관련 부속합의서가 마련되면, 주민 수용성 조사를 거쳐 SRF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2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17년 나주혁신도시 내에 건립됐다.

혁신도시 인근 시·군인 나주·화순, 순천·구례, 목포·신안 등 3개 권역에 설치된 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활 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 생산된 고형연료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를 구축하려는 취지였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 특별 합동단속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6일부터 4일간 시·군과 함께 새고막 불법 채묘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다. 현재 전남지역 해상은 무허가·초과 새고막 시설물로 인해 일반 어선들의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 또 9월 철거 시기 시설물을 해양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득량만권역에서 무허가 새고막 채묘시설 및 초과 시설에 대한 민원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합동단속에는 전남도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4개 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에서 보유한 어업지도선 5척과 30여 명의 공무원이 집중 투입된다.

단속은 ▲무면허·무허가 양식시설 설치 행위 ▲무허가 어선어업 조업 ▲해양쓰레기 무단 투기 등 3가지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벌일 계획이다. 새고막 채묘시설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0.5~5ha 이내 허가된 위치와 면적에만 시설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 학 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